

CEO리스크·MSCI 편입 불발에도 개미들은 에코프로 ‘하따’ 움직임

KRX, 5일만에 에코프로 20% ↓
고평가 논란 외국인·기관 매도 속
개미, 올 에코프로 2조 넘게 매수
증권가 ‘과열구간’ 매도·중립 의견

오너 리스크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편입 불발 등 악재가 겹치면서 ‘대장주’였던 에코프로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 증권계에서도 고평가에 따른 ‘매도’ 의견이 제시됐던 만큼 주가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반등을 기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코프로 주가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단 5일 만에 20.35%가 급락했다. 최고가인 82만 원을 기록했던 지난달 11일과 비교해서는 한 달여만에 32.9%가 폭락한 모습이다. 8일 기준으로 에코프로 주가는 연속 내리막을 탔으며, 15일에도 전장 대비 4.23% 하락 마감했다. 2차전지업종의 강세를 주도하던 에코프로의 하락세는 개미(개인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위기 상황이다. 개미들은 올해만 에코프로를 2조 이상을 사들였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지난 11일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구속과 MSCI

한국지수 편입 불발까지 겹친 현 상황을 짚으며 에코프로의 추가 반등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당초 MSCI 한국지수 편입 유력 후보였던 에코프로는 추가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편입이 불발됐다. MSCI는 전체 시가총액과 유동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지수 편입 종목을 선정한다. 지수에 편입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어 수급이 개선되는 장점이 있다.

김동영 삼성증권 연구원도 “에코프로의 경우 극단적 가격 상승 조건에 의해 편입이 불발됐다”고 분석했다. MSCI는 지수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극단적 주가 상승 배제’ 조항을 도입했다. 해당 조항은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한 종목에 대해 여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수 편입에서 배제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그 기준에서 배제됐을 것이라는 풀이다.

에코프로를 두고 고평가 논란이 지속되면서 외국인·기관의 동반 매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흔들리는 주가흐름

에도 개미들은 ‘하따(하한가 따라잡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너 리스크가 터졌던 11일에 개인 투자자들은 26억 원 가량을 순매도했지만, 바로 다음 날인 12일에는 512억 원 어치를 바로 순매수하기도 했다.

증권가에서는 일전부터 에코프로를 비롯한 에코프로 그룹 종목에 대해 ‘과열구간’이라고 평가하며 투자 의견을 매도 혹은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달 12일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에코프로에 대해 “현재 시가총액이 5년 후 예상 기업가치를 넘어섰다”며 “동종 업계 기업 중 미래에 대한 준비가 가장 잘 된 위대한 기업이지만 좋은 주식이 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매도’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역시 “에코프로의 미래 예상 실적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주가수익비율(PER)은 굉장히 고평가돼 있다”며 “PER이 높다고 하는 것은 고평가됐다는 가장 좋은 지표”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네이버는 높은 PER로 평가되고 있지만 45.75배 선이다. 하지만 에코프로의 15일 PER는 364.08로 평균치를 압도적으로 넘겼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수도권 연립주택 전세거래 비중 다시 늘어

전셋값 내리고 금리 상대적 하락
작년 전세비중 50%로 떨어졌다가
지난 2월부터 전세 거래량 회복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 비중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 하락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등으로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금융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5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전세 거래비중이 50%까지 떨어지면서 지난 2011년 전월세 실거래가 발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올해부터 다시 전세 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1월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량이 월세 거래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줄었지만, 2월부터는 다시 전세 거래가 늘어나면서 전세와 월세 거래량 차이가 다소 벌어지고 있는 것.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전세 거래량 비중은 지난해 12월에 49.7%로 월세 거래량 비중(50.3%)에 뒤처지기도 했지만 올해 1월 이후 전세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인천은 지난해 12월에도 53.1%로 여전히 전세 거래량 비중이 월세 거래량 비중에 비해 높았으나, 2017년 2월 이후로 가장 낮은 비중이다. 경기 전세 거래량 비중은 지난 1월에 49.0%로, 월세 거래량 비중(51.0%)에 역전을 당했다.

수도권 지역의 전용면적 3.3㎡당 평균 전셋값을 2년 전 동일 시점의 평균 전셋값과 비교했을 때 두 가격 간의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1월 서울지역 연립다세대 전셋값(563만원)이 2년 전 가격(452만원)에 비해 3.3㎡당 111만원이나 높았는데 지난해 10월(560만원)에는 2년 전 가격(539만원)에 비해 3.3㎡당 21만원 높다. 올해 2월에는 평균 550만원에 거래되며 2년 전보다 4만원 낮은 가격을 기록했다.

인천은 지난 2021년 1월 2년 전 가격보다 3.3㎡당 59만원이 높았으나, 지난해 10월에는 평균 230만원으로 2년 전 거래가격인 221만원보다 9만원 높다. 같은 기간 경기 지역의 경우 각각 75만원, 22만원 높았다.

반면, 지난해 11월 인천 전셋값이 평균 224만원으로 2년 전 평균 가격인 232만원보다 3.3㎡당 8만원 더 낮은 금액으로 거래되며 평균 거래가격이 내려갔다. 경기 지역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12월에는 313만원으로 2년 전 평균 가격(321만원)보다 3.3㎡당 8만원 낮은 금액에 거래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전세 거래가 주춤했던 지난해 4분기에는 전세 거래보다는 월세 거래가 늘면서 전·월세 거래비중이 1대 1 수준까지 갔지만 올해부터는 다시 전세 비중이 커지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kdh@

外人, 네이버·삼성전자 매수 ‘대형주 주목’

CFD 이슈등에 국내증시 ‘박스권’
이번주 코스피 예상밴드 2420~2550
반도체 보다 ‘실적주’ 우위 예상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 갇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수익률이 부진한 소형주보다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대형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도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이슈, 에코프로 급락세 등 국내증시에서 악재가 이어지고 있어 대형주의 비중을 높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93포인트(0.16%) 오른 2479.35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는 7.90포인트(0.96%) 하락한 814.53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소폭 상승했으나 최근 4거래일 연속 하락했으며, 코스닥은 6거래일 연속 떨어지는 등 국내 증시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여파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데다 미국 부채한도 문제, 경기침체 우려, 지역은행 부실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증시가 물가 안정에도 지역은행 위기 재부각, 부채한도를 둘러싼 정치권의 분열로 부진했던 점이 한국증시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진행



15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2475.42)보다 3.93포인트(0.16%) 상승한 2479.35에,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22.43)보다 7.90포인트(0.96%) 내린 814.53에 거래를 종료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34.5원)보다 2.5원 오른 1337.0원에 마감했다. /뉴시스

되고 있어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증시에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시 상승을 이끌 만한 호재도 없어 당분간 국내증시는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에서는 이번 주 코스피 예상밴드로 2420~2550을 제시했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 하강 인식에 따른 모멘텀 부족은 주가 상단을 제한한다”며 “주식시장 흐름은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성장 기대감이 높은 코스피 대형주와 실적주, 연초 랠리에서 소외됐던 종목, 주가 부담이 없는 종목 등에 주목하라고 강조했다. 중·소형주들의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외국인 수급이 대형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네

이버(2248억원), 삼성전자(2227억원), 현대차(1743억원), 기아(1260억원), LG전자(840억원) 등 대형주 중심으로 순매수했다.

최유준 연구원은 “주가 바닥을 확인한 후 짧은 간격의 순환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주도주가 압축되는 과정이 나타난다”며 “현재 이차전지업종의 우위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박스권 장세에서는 반도체보다 실적주 우위를 나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혁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증시 조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형주 수익률이 대형주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코스피에서 외국인·기관의 순매수와 낮은 신용잔액 비율을 갖춘 종목이라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원관희 기자 wkh@

예탁결제원 ‘넥스트 KSD 추진단’ 설치

현안 선제 대응 ‘조직개편’ 추진

한국예탁결제원이 이순호 사장(사진) 취임 후 약 2개월 만에 조직개편을 나섰다.

15일 예탁원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은 정부 정책 및 시장 동향 등 대외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조직의 시너지 및 효율성 제고,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넥스트 KSD 추진단’을 본부급으로 설치해 공공기관 지정해제 이후 시장성 기업에 적합한 비전과 전략체계 재정비, 신규사업 개발,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유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증권과인신신본부도 신설해 경쟁업무의 대외경쟁력과 수익성을 강화하고, 글로벌본부 내 후선인력을 현업조직으로 전진 배치해 급증하는 해외주



식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토근증권(ST) 등 혁신금융상품 대응, 신종 수익증권 수용, ESG경영 강화, 윤리·인권경영 내실화, 자금운용 리스크 관리 및 재해복구체계(DR) 관련 조직도 정비한다.

조직개편 후 조직 규모는 조직개편 전과 비교해 감소했다. 이는 소규모 조직의 축소 및 통폐합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순호 사장은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속도와 효율”이라며 “하루빨리 조직구조를 혁신해 조직에 활기와 생동감을 불어넣고,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시장과 국민이 신뢰하는 혁신 금융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바치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관희 기자 wkh@